

무신론은 진짜 정신아편이다

《종교는 대중의 정신아편이다.》 이것은 마스의 사악한 관념이며 공산악당이 백성을 우롱하며 무신론을 선양하는 구호이다.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한번밖에 없다고 여기면서 눈앞의 리익에 미혹되어 탐오, 뇌물수수, 절도, 독품매매, 가짜상품생산, 화폐위조 등 나쁜짓을 마음대로 한다.

유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좋은 일만 하고 나쁜짓을 하지 않으며 언제나 마음을 닦고 욕망을 버리며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가져와 천인합일과 반본귀진의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 종공은 종교신앙은 정신적 공허와 현실에 대한 불만을 종교로써 자기를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론조를 퍼뜨리고 있다.

예수의 12 제자와 많은 석가모니 제자들은 뛰어난 신자들이다. 그들은 정신적공허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해탈하려고 종교를 믿었는가? 인도의 왕자 석가모니, 스님이 되고자 여러번 제기한 량무제 소연, 스님이 된 청조황제 순치거 등 이런 사람들이 제왕의 직위를 버린 것은 자신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 인가? 아니다! 그들은 종교와 수련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의를 알았기 때문이다.

저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뉴턴은 나중에 왜 종교를 믿었는가? 그들은 과학연구에서 깊이 파고 들면 들수록 종교에서 말한 도리가 옳다는 것을 실증하였기 때문이다. 종교는 정신아편인 것이 아니라 더욱 높은 층차의 추구이다. 무신론이야말로 진정한 정신적 아편이다.

올림픽운동회명장 황효민의 퇴당성명

올림픽운동회의 명장 황효민은 2004년 12월 12일 퇴당인터넷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퇴당성명을 발표하였다. 《몇년전에 중앙텔레비죤방송국에서 보도한 <천안문분신자살> 사건을 본 후 매우 놀랐다. 얼마 안지나 유엔교육발전조직에서 <천안문분신자살>사건은 중국정부에서 가짜로 연극을 꾸며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는 분신자살사건을 느린 동작으로 분석한 화면을 본 후 종공은 살인의 방식으로 법륜공을 박해하고자 백성들을 속인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특히 《9 평》을 읽고서 크게 깨달았고 종공의 진면모를 똑똑히 보았다. 10여년 간 당조직과 연락이 없었고 당비를 바치지 않았지만 명확히 퇴당엄정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내심으로 철저히 전면적으로 당의 독소를 깨끗이 제거하고자 악당에서 퇴출 하는 바이다.》



대법 사부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련재)



4.신기한 공능

6 대련제 1기전수반을 끝마치고 1994년 4월 4일에 우리는 사부님을 모시고 금주로 가는 도중 큰비를 만났다. 나는 비를 끊은 다음 다시 떠나려고 생각하면서 내심 오늘 열리는 금주전수반에 영향을 미칠가봐 걱정 되었다. 사부께서는 나를 보고 《그럼 비를 오지 못하게 하겠소.》라고 말했다. 과연 얼마 안가서 앞의 하늘이 밝아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뒤엔 여전히 검은 구름에 깔려 있었고 큰비가 쏟아졌다. 사부께서는 날보고 말했다. 《저 흰색은 발해의 한 마리 룡이고 황색은 황해의 한마리 룡이요. 당직을 서고 있는 이 두마리의 룡더러 비내리는 결정을 부인하고 비를 멈춘다면 그가 돌아가서 어떻게 교대 하겠소? 그래서 난 절충하여 비가 차 뒷편에서 내리게 했소.》

---한 대련대법제자의 글에서 발췌

6 내가 미국을 방문하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리선생님의 곁에 앉게 되었다. 사부께서는 날보고 창밖을 내다보라고 했다. 비행기 날개 아래에 오색찬란한 큰 광환이 있었는데 무척 아름답고 장관이었다. 선생님께서는 《그것은 나의 진신이다.》고 말씀하셨다.

---한 남경대법제자의 글에서 발췌

새소식 신당인성탄야회가 성대히 개최



세상사람들이 모두 주목하는 신당인 텔레비전방송국에서 개최한 제 1차 9장 계열 《성탄절야회》는 2006년 12월 19일 저녁 뉴욕브로드비강극장에서 첫막을 열었다.

독특한 시각, 드넓은 구상, 우아한 무용, 순수한 고전음악, 화려한 복장, 조화로운 배경설계로 펼쳐진 야회는 불도신을 찬송하고 진선인정신을 구가하여 관중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프랑스 외교부장께 보낸 편지

2006년 12월 28일, 프랑스썬나성 선거지역 국회의원이며 심장병의사인 야크린-채스 녀사는 외교부장에게 편지를 써 프랑스의 일체 영향력을 동원하여 중국정권이 협조를 받아드리게 함으로 하여 현재 중국에 들어가 직접 조사할 수 없어 고소상태에 처한 그런 사실진상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610》이 거민주택을 부수다

2006년 12월 4일 오후 2시 10분, “610”지 프차 한대가 하북성래수현왕춘향조각장촌에 사는 법륜공학원 교영복 집문앞에 멈춰섰다. 사복경찰 2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담장을 뛰어넘고 벽돌과 삽자루로 창문을 박살냈다. 악인들은 또 교영복의 본가집에 가서 주택을 부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교영복의 딸은 현지 공안국과 파출소에 안건을 신고했지만 반달이 넘도록 이악성류망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악보받아 죽은 《610》 두목 류금위

길림성 610 두목 류금위는 99년 7.20 이래 대법제자들에게 사정없이 박해를 감행했는바 선후로 30 여명 법륜공학원들을 로동교양소와 감옥에 강금했다. 2005년 8월 22일, 류금위는 악보를 받아 림파성암으로 죽었다.



견정한 대법제자 양국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장춘흑취자로교소에 갇힌 연길시대법제자 양국서는 《법륜대법은 좋다》는 말을 했다고 악경들에게 여러차례 전기몽둥이 찌질을 당하였으며 또 법륜대법을 모독하는 텔레비존절목을 보지 않는다고 못 사람들 앞에서 갖은 모욕과 희롱을 당했다. 더욱 악랄한 것은 4 대대 악경들이 양국서를 5 일간 침대에 묶어놓고 대소변을 침대에 보게 했다.

2003년 상반기에 양국서는 단위의 통지를 받고 파출소에 월급타러 갔다. 파출소의 한 악경이 그에게 법륜공을 련마하는가고 묻자 그는 련마한다고 대답했다. 이 한마디 말로 1 년반 로동교양판결을 받고 또다시 장춘흑취자로교소에 갇혔다. 이 몇년동안 모진 박해와 시달림을 받은 그의 남편도 온몸이 마비되어 침대에 드러눕게 되었다.

2006년 12월 13일, 병상에 있는 남편을 호리하고 있던 양국서는 또다시 체포되어 심문과 혹형을 당하고 있지만 사악 앞에서 그녀는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정의로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법륜공 동수들이 정념을 가지하여 사악의 박해를 해체하고 하루 빨리 석방되어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자.

《법륜공학원의 고아를 기르겠어요》

귀주성 모지역의 한 부녀는 뜻밖에 법륜공 고아를 소개하는 VCD 진상비디오를 보았다. 그는 한 법륜공학원을 찾아가서 《중공악당은 수많은 법륜대법제자를 박해하여 죽였어요. 그들의 고아들은 집도 없이 굶주리며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고 있어요. 나는 법륜공학원의 고아 하나 기르려고 해요. 당신들 집에서 법륜공학원의 고아 하나를 기르세요.》라고 했다.

법륜공국제인권소송이 세계에서 제일

2006년 5월 1일, 국제사법정의협회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동안 전세계 5대주 33개 국가의 국제인권협회와 법륜공단체에서 중공의 전 독재자 강택민, 라간 및 30명 법륜공박해에 참여한 중공고위급관원들을 기소했으며 제기된 민사소송 혹은 형사소송은 54개 항목에 달한다. 2006년 4월까지 16개 국가의 국제인권협회와 법륜공단체에서 강택민개인안건을 소송했다. 이 법륜공국제인권소송규모는 21세기초 전세계에서 제일 크며 최악이 제일 엄중한 국제안건이다.



법륜공은 정치에 참여했는가?

지난날 높은 구두를 신고 연지를 찍고 홍콩과 대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자산계급정치라고 하면서 엄격히 금지시켰다. 지금에와서 돌이켜 보면 사실 정치에 속하지 않는다. 법륜공은 정치강령과 정치목표가 없는 군중성수련단체로서 종래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팽덕회가 러산에서 《바른말》을 했다는 리유로 《반혁명》모자를 썼고, 민주인사들이 중공정풍에 《합리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우파》모자를 썼고 법륜공학원들이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고 박해진상을 알린다 해서 《반당, 반정부》란 모자를 쓰고 있다. 《일관적으로 정확한》중공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결함이나 오류를 지적하기만 하면 정치에 참여한 죄로 《반당》, 《반혁명》, 《반정부》란 모자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응당한 일로 되어 버렸다. 중공이 법륜공을 탄압하고 학원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국내의 학원들이 북경에 가서 상방하고 해외학원들이 중국대사관에 가서 청원하고 유엔회의에서 법륜공수련인 생체장기적출한 중공의 만행을 지적하고 실증한 것은 명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중공을 반대한 것도 아니며 단지 학원들에게 합법적인 련공환경을 마련해주며 박해를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공은 응당 실사구시해야 하며 착오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법륜공을 아부런 정치성이 없지만 권리를 탐내지 않고 명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직 수련자들로 하여금 모든 집착심을 버리고 진선인에 동화시켜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반본귀진하게 한다. 그러므로 수련은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우며 귀중한 것이다.

통계 숫자



- 99년 7.20 이후 7년동안 3,010명 수련생들이 박해로 사망했다.
- 지금까지 중공에서 1,700만명이 탈퇴했다.